

# 조용병 “신한문화의 대전환 시기… 고객 중심 초심 필요”

〈신한금융그룹 회장〉

**제1회 신한문화포럼 ‘리부트 신한’**  
내부 관리 프로세스, 고객으로 회복  
신한문화의 핵심 되는 가치 ‘재적재’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만의 방식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금융그룹, 즉 ‘일류(一流) 신한’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한문화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7일 ‘제1회 신한문화포럼’을 열고 ‘리부트(RE:BOOT) 신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신한금융은 그룹의 창업정신을 계승하고, 일류신한을 위한 신한문화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신한문화포럼을 신설했다. 신한금융은 과거와 다른 디지털 일류 그룹으로 새롭게 재가동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번 신한문화포럼의 슬로건을 ‘리부트(RE:BOOT) 신한’으로 정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리부트(RE:BOOT) 신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이번 포럼에서는 그룹 초창기부터 이어온 신한문화 전통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고객과 미래, 직원의 관점에서 신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고객을 위한 초심(Remind) ▲미래를 향한 도전(Challenge) ▲직원을 위한 자부심(Pride) 등을 3가지 세부 주제로 선정했다.

초심 세션은 ‘고객중심, 일류 신한’을

주제로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초심으로 고객의 마음에 더 가까이), 신한라이프 성대규 사장(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일류 신한라이프 조직문화), 신한벤처투자 이동현 사장(변화하는 고객, 끊임없는 실행의 시대)의 발표가 계속됐다.

도전 세션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신한문화’를 주제로 신한DS 이성용 사장

이 발표를 시작했으며, 미래전략연구소 이권혁 대표가 ‘3D 금융서비스 시대의 도래’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자부심 세션에서는 그룹의 MZ세대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해 그들이 생각하는 신한문화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바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회장은 “신한문화를 재창조(RE:BOOT)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을 삭제(Delete)해야 한다”며 “관행적 업무 방식 등 새로운 문화의 장애물을 치우고 내부 관리 프로세스를 다시 고객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단순히 기존의 것을 삭제하는 행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한 리부트를 위한 두번째 단계는 재적재(Reload)다.

조 회장은 “고객중심의 초심, 직원의 창의성과 주도성,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전, 사회적 가치 창조를 위한 업의 한

계 초월 등 신한문화의 핵심이 되는 가치를 재적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삭제와 재적재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고객(Customer)의 요구(Demand)를 중심(Centric)에 두자고 제안했다. 고객중심의 초심을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고객에게 더 다가가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중앙의 권위(Power)와 관행, 즉 관료주의를 버리고 보다 객관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업무 프로세스와 각각의 직원들이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 적절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회장은 “D&D(Decentralization & Depowerment) 성공의 키는 리더들이 쥐고 있다”며 “리더들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갖추고 적재적소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 조직의 스피드를 추가속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60여개 그린뉴딜기업 참여 ‘일자리박람회’ 여유자금 특화 ‘SC제일마이시그니처통장’

**IBK기업銀-신보-韓에너지공단**  
참여기업에 전과정 ‘AI 채용솔루션’  
구직자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IBK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2주간 채용 전 과정을 온택트로 진행하는 ‘2021 그린뉴딜 온택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에코인슈텍, 세한에너지, 넥스트솔라에너지 등 태양광·풍력·연료전지·환경 분야 60여개 그린뉴딜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해 채용을 진행한다.

박람회 참가기업에게는 인공지능(AI)시스템을 활용한 서류심사, AI면접전형, 인적성·직무검사 등 전 과정 AI 채용솔루션을 제공한다. 인사담당자는 솔루션 결과를 보조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어 공정한 채용 절차 진행이 가능



‘2021 그린뉴딜 온택트 일자리박람회’ /IBK기업은행

하다. 구직자에게는 AI자기소개서 분석, 이력서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면접을 실시한 구직자 중 선착순 300명에게는 면접지원금을 제공한다.

기업의 현직자가 직접 참여해 회사와 직무를 소개하는 채용설명회 및 직무콘서트도 마련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한편 기업과 구직자간 원활한 매칭을 위해 지난 5월 그린뉴딜 핵심 분야인 신재생에너지·전기차·탄소중립 등을 주제로 무료 직무교육도 진행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이번 일자리박람회가 그린뉴딜 혁신기업과 훌륭한 인재가 만나는 상생의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창의적인 일자리 사업들을 계속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람회 참가방법 및 채용정보는 ‘2021 그린뉴딜 온택트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신한라이프, TV광고에 버추얼 모델 활용

국내 최초 ‘버추얼 인플루언서’

신한라이프가 MZ세대와의 소통에 박차를 가한다.

신한라이프는 금융업계 최초로 TV 광고 캠페인에 버추얼(Virtual) 모델을 활용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출범한 신한라이프는 ‘라이프에 놀라움을 더하다’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걸고 TV와 SNS를 중심으로 브랜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광고에는 버추얼 모델인 ‘로지(Rozy)’가 등장한다. ‘로지’는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얼굴형을 모아 탄생한 22세의 젊고 발랄한 여성이다.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인스타그램



버추얼 모델 ‘로지’가 출연한 신한라이프의 광고 이미지. /신한라이프

램 팔로워 2만 이상을 보유한 국내 최초 ‘버추얼 인플루언서’이다.

신한라이프는 ‘틱톡(TikTok)’과 같이 SNS상에서 유행하는 음악과 댄스를 분석해 젊은 층의 취향을 반영한 BGM과 안무를 개발해 광고에 활용했다.

/백지연 기자

## 우리은행 부동산 개발자문 서비스 실시

우리은행은 부동산 개발에 관심이 많은 PB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자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부동산 개발자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부동산 매매 투자자문 서비스에서 한 단계 나아가 보유 부동산 진단 및 개발자문 서비스까지 동시에 제공한다. 특히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자산진단 ▲시장조사 ▲지역·시장성 분석 ▲사업수지 분석 등 우리은행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더불어 개발 단계별 제휴업체와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최적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석 기자 ysl@

거래 실적 따라 차등 기본금리 적용

SC제일은행이 7일 ‘SC제일마이시그니처통장’을 출시했다.

마이시그니처통장은 ▲입금 건별로 입금 후 최초 30일까지는 0.01% ▲31일 이후부터는 SC제일은행에 예금주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0.1~0.7%까지 차등 기본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추가 우대금리 조건을 만족하면 신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고 0.3%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추가 우대금리는 은행 첫 거래 고객 이면서 은행거래실적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0.3%포인트가 더해진다. 기존 거래 고객은 은행거래실적이 3000만원

이상이면 0.1%, 1억 원 이상이면 0.2%를 각각 적용한다. 적용기한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적용한도는 최대 10억 원이다.

마이시그니처통장의 이자 계산 방식은 먼저 입금한 금액을 먼저 출금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치 금액을 자주 출금하지 않으면 더 높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는 조건 없이 면제된다.

박종관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 상품부부장(상무부)은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면 서도 SC제일마이시그니처통장을 통해 안정적인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현대카드, 제네시스 오너전용 카드 선봬

빌리티·EV 서비스 중 선택

제네시스와 현대카드가 제네시스 오너에 최적화된 혜택을 담은 ‘제네시스 카드’를 선보였다. 제네시스 카드는 제네시스 오너가 보유한 차량에 따라 모빌리티 서비스와 EV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택하면 월 사용금액에 따라 전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5%를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또 차량 정비와 주유 등 차량 유지관리 업종을 이용하면 최대 4.5%, 모빌리티 업종을 이용하면 최대 3%를 적립 받을 수 있다.

EV 서비스를 선택하면 월 사용금액에 따라 전기차 충전 금액의 100%까지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또, 전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0.75%를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주차, 세차 등 차량 유지관

리 업종은 최대 4.5%, 모빌리티 업종은 최대 3%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항공·호텔·백화점·골프 등 프리미엄 업종 이용 시 5%를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등 특별 적립 혜택도 강화했다. 이밖에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서비스와 커피전문점 할인, 주말 무료 주차 등 현대카드 플래티넘서비스가 더해졌다. 신차 구매 시에는 1.5% 특별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 디자인은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인 투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블랙(Black)’과 코퍼를 전면적으로 사용해 고급감을 표현한 ‘코퍼(Copper)’ 디자인 2종 중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

카드 신청은 제네시스 차량 보유 고객에 한해 가능하며 연회비는 국내 전용, 국내외겸용(VISA/MasterCard P latinum) 모두 10만원이다.

/권소원 수습기자 think@